목포 대양산단 11년만에 성공 마무리

조성·분양 전담 법인 공식 청산
감사·수사·소송 등 우여곡절
146개 기업·8000억원 유치
목포 미래경제 동력 자리매김

목포 대양산단 조성과 분양 등을 전담해 온 목포대양산단(주)가 출범 11년만에 공식 청산됐다. 목포 대양산단 전경. 〈목포시 제공〉

목포시 대양산단 조성과 분양 등을 전담해 온 특수목적법인(SPC) 목포대양산단㈜가 출범 11년만에 공식 청산됐다.

5일 목포대양산단(주)에 따르면 대양산단 조성과 분양을 위해 지난 2012년 2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양산단(주)(청산인 최창호)가 법인 청산을 완료했다.

목포대양산단은 지난해 10월 법인해산 등기를 완료한데 이어 최종 사업결산 및 공고, 주주총회의 사업결산 승인을 받아 청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수목적 법인에는 목포시와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한국투자증권, SC키스톤 등이 지분사로 참여했다.

대양산단은 당초 2970억원의 사업비를 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금융사(한국투자증권)와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어음(ABCP) 발행을 통해 조성이 추진됐다.

2012년 2월에는 사업을 전담할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2016년 4월 준공했으며, 2017년 4월 사업준공을 모두 마쳤다.

대양산단은 조성과정에서 4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부지 분양업체와 법적소송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와중에도 한국투자증권의 금리 인하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공사비 절감으로 25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목포시가 조성비 부담으로 인한 부채로 위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분양을 완료하고, 조성사업 대출금을 만기상환하는 성과를 보였다.

목포대양산단은 그동안 146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8000여 억원의 투자계약과 1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목포 미래경제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창호 청산인(전 대양산단 대표)은 "대양산단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외지업체 유치 등을 통해 김가공 및 수산식품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다"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물류중심지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청년 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박차

박우량 군수 " 안정적 정착 도움"

신안군이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총 10억3400만원으로 지역 13개 사업장에 23명의 청년 일자리와 16팀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에는 청년 근로자 인건비의 80%(최대 월 160만 원)를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직무교육, 자기계발비, 지역 정착 희망적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1년간 총 1000만원의 지역 정착 지원금도 지원한다.

청년 창업가에게는 창업 전문 지원기관과 연계해 전문적인 창업 교육, 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상품화개발비, 홍보 마케팅 비용 등으로 최대 20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속 지원해 지역 인구소멸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김장 걱정마세요"…명품 해남배추 정식

해남군 들녘에 명품 해남배추 정식이 한창이다. 김장용으로 쓰이는 가을배추는 9월 초까지, 월동을 하는 겨울배추는 중순까지 정식을 마치게 된다. 해남배추는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하고, 단단하고 꽉차게 여문 노란 속이 특징이다. 〈해남군 제공〉

목포신항만운영

전국체전 선수 등에 장학금

목포신항만운영(주)는 지난 4일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과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후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목포신항만운영은 이날 오후 목포시청 하키팀 및 전국체전 출전 목포시 선수단 지원을 위한 후원금 1300만원을 목포시체육회에 지정 기탁했다.

목포신항만운영의 목포시청 하키팀 선수단 후원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목포시청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여종구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김성대 목포시 체육회장, 배상호 목포시청 하키팀 감독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목포시 체육회를 통해 목포시청 하키팀 및 전국체전 출전 목포시 소속 선수단에 전달된다.

목포신항만운영은 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운곡장학금 1500만원을 시에 기탁했다.

기탁은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이뤄졌다.

운곡(雲谷) 장학금은 한라그룹(현 HL그룹) 창업주인 고(故) 정인영 명예회장의 인재육성에 대한 뜻을 기리고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종구 목포신항만운영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운동선수와 지역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흑석산자연휴양림 숲속 놀이터 모래놀이 테이블.

해남군, 흑석산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

캠핑장·유아숲 체험원 등 운영

해남군이 흑석산자연휴양림에 숲속 놀이터를 조성했다.

숲속 놀이터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장애 어린이 뿐 아니라 비장애 어린이도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졌다.

휠체어를 타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보행에 불편한 경사턱과 계단 등을 없애 주변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했다.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까지 완료했다.

특히 숲속 놀이터는 자연휴양림과 유아숲 체험원이 위치한 흑석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목재 놀이시설과 맨발 놀이터 등을 조성, 청정한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특성화된 놀이터로 조성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용 짚라인을 비롯해 마운딩트랙, 슬라이드, 목재기둥오르기, 징검목 건너기, 흙언덕 등이 조성돼 어린이들이 자연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했다.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해발 653m)에 자리한 흑석산자연휴양림은 산림복합 휴양공간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산림교육 등을 운영하는 산림휴양지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영암 무화과콤부차·대봉감소스 어떤 맛일까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나서

영암군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배·고구마·무화과〈사진〉·대봉감 가공제품 개발에 나섰다.

영암군에 따르면 연구개발업체인 코모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개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영암의 질 좋은 붉은 황토에서 자란 농특산물은 우수한 품질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1차 생산물과 단순 가공품만 판매되는 현실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영암군은 이런 현실을 바꿔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가공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목표는 농가 소득과 지역기업 이윤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번 협약으로 단맛이 일품인 배를 활용한 배음료, 전국 최대 생산량의 무화과로 만든 콤부차, 자연의 건강한 단맛을 선사하는 대봉감소스, 프렌차이즈 빵·피자에 달콤함을 더하는 고구마무스 등이 개발된다.

군은 용역에서 개발된 제품의 제조법을 희망 가공업체나 창업자에 제공해 기업·소상공인의 연구개발비를 절감하고 원료 제공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나서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가공제품 개발과 판로 확보에 성공해 농가 소득과 지역기업 이윤 증대는 물론이고, 특산품을 먹기 위해 영암을 찾는 관광객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